

03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추진부서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 02-2680-6455

개선배경



- 친환경차의 보급확대와 수요증가에 따른 인프라 기반시설 건립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친환경 수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어려움
 - 정부 정책 및 시민 누구나 필요한 공익사업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과도한 부과로 인하여 필수 인프라 구축 저해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전기차충전소 구축은 가능하나, 「건축법」상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 허가기준이 없어 수소차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
- ※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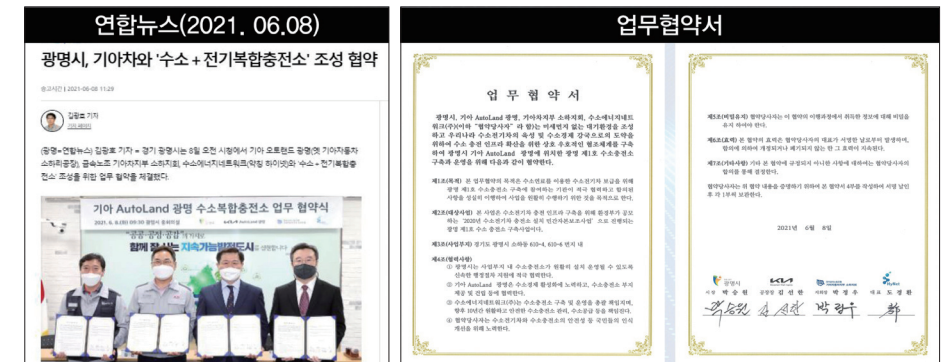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친환경 수소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어려움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소 설치 시 개발부담금, 보전부담금 등 각종 행위에 따른 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하거나, 사업추진 부담을 가중 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개별법령에 따른 부서별 협의를 통한 각종 부담금 부과 관련 법 개정 및 행정규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개정('21.05.04.)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충전소 건축행위 근거 마련으로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충전소를 복합으로 구축 가능 ● 보편적 에너지복지에 필요한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광명시의 행정지원, 기아차 부지제공 및 전기차충전소 설치·운영, 하이넷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전기차충전소의 구축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차목 신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9. 04. 18.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방안제시(광명시 → 기아)
- '19. 05. 30. 광명시, 기아차, 하이넷 3자 간 충전소 건립 협력 협의
- '20. 02. 27. 수소충전소 설치업무 협약서 체결(기아 ↔ 하이넷)
- '20. 04. 07. 2020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공모 선정(국비 15억 확보)
- '21. 03. 30. 수소복합충전소 실시설계 완료
- '21. 05. 19.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
- '21. 05. 25.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 '21. 06. 08. 광명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사업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 기아(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기아차노조
- '21. 09. 0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21. 09. 13.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고수리(광명시)
- '22. 05. 04. 기아 AutoLand 광명 수소복합충전소 상용운전 개시

개선효과



- 인프라 구축 파급
 -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복합충전소 구축 사례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의 학습 및 파급효과
- 보편적 에너지 보급
 -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하여 수도권 서남부 수소차 충전을 담당하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구현
- 민·관 협력 모델
 -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제시 및 협업을 통한 선제적 행정사례 제시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충전소' 개소

광명 오토랜드에 수소충전 1기·전기충전 6기 설치
하이넷, 환경부 지원받아 연내 수소충전기 1기 증설

최인영 기자 2022.05.04 13:10:00 수정 2022.05.06 07:52:41 1528호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

[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수소충전기와 초고속 전기충전기를 갖춘 복합충전소가 경기도 광명에서 상업충전을 시작했다.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문을 연 것이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하이넷이 준공한 27번째 수소충전소인 하이넷 광명 소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충전기를 설치했다. 4,381㎡ 부지에 하이넷 수소충전기 1기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 이피트(E-pit) 전기충전기 6기를 갖추고 있다.

하루 최대 60대의 수소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260kw 초고속 충전기 4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기를 설치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적용해 친환경 복합충전소를 구현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시운전을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첫 사례로서 지난해 6월 기아, 광명시, 하이넷이 업무협약을 통해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04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부서 경기도 수질정책과 ☎ 031-8008-6922

개선배경



-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로 인하여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주거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또한, 규제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개별처리·방류로 폐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수 : 2010년 8,210개소 → 2019년 11,977개소 (연평균 377개소 증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입지불가 ●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가구공장 잉여자재(폐목재) 및 폐의류 재활용시설 일부 입지허용 ● 주거지역 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시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일정부분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부 허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을 통해 폐수발생이 없는 폐목재·폐의류 재활용시설에 대해 일부 입지를 허용하고,
- 주거지역 내 난립한 소규모 공장 집적화를 위해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정비율(최대 50%)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